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1월 22일**

응답의 근본 창4:3-5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생명도 받고 공기도 받고 다른 모든 물질도 다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공기를 걷어 가시면 모든 생명체는 5분 안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이미 주신 것들은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이것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아무런 말씀 없이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 다윗, 모세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지금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응답을 지속으로 받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고 세상도 정복하고 사단의 모든 역사도 능히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들이셨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이유만 알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지속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답을 주시기 위하여 쓰신 책입니다. 원죄를 당한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수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요 약속의 피입니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 보혈이 뱀의 머리를 깨고 인간을 저주에서 건집니다. 오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약속의 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곡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피의 제사를 드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3:21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이 동물을 죽여 피 제사를 행한 이후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며 이 약속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 설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보혈 안에만 생명이 있고 저주에서의 해방이 있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이며 그의 약속의 피 입니다. 이것이라야 인간이 원죄의 저주에서 나오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성경과 같은 작품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땅 끝까지 보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피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인생의 답인 것을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세의 응답을 주셔서 저주를 정복하고 모든 문제의 뿌리를 뒤집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오늘 다시 한 번 언약으로 발견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발견이 되면 그 때부터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약속의 피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모든 저주와 운명의 머리를 깹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믿기는 믿고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만날 수 있는 길도 그가 흘리신 그 약속의 피 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 제물이며 그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 없이는 아무도 원죄와 사단의 저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수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 등과 같은 저주를 무엇으로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3직에 관련된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의 3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와 예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3직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하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내용이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만일 그 말씀이 내게 발견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늘 마음에 언약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반드시 그 말씀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된 사람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뿐입니다. 들어온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수 많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은 기도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가 없는 기도와 예배는 사실은 거의 허사 입니다. 완전 허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허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입으로 기도나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와 예배 안에 이 약속의 피를 넣으면 모든 것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